



## 발간자료

• **전략 Weekly:** FOMC 전까지 금리 경계심 잔존 가능, 회의 결과 해석도 단기적으로는 추가 변동성을 자극할 여지 존재. 탄력적 상승 기대보단 기존 제시하던 박스권 전망을 유지. 추세적 흐름을 기대하기 힘든 만큼 적극적인 익스포저 확대보다는 지수차원의 가격 메리트 형성(6,000pt대 중반) 시 반도체와 HW 관심 제고 가능. 지수 반등 시 고금리 원화 강세 상황을 감안한 은행, 보험 업종이 방어적 대안 (투자전략 조병현)

• **조선(Overweight):** 투자: 9월10일 총 1조722억원 CAPEX 공시 — 대형 발전엔진 신공장 8,336억원(2028년5월 완공, 3GW→2030년 7.2GW 목표)과 SMR 주기기 생산설비 2,386억원. 캐파: 시장 예상(2~3GW)보다 큰 4.2GW 증설(발전 3.3GW+박용 0.9GW) — 육상발전용은 0.7GW→4.0GW로 20배 확대, 영암 HD현대엔진 보완투자로 2027년 6월부터 우선 생산. 배경: AI DC향 발전엔진 수주(Aperion·Corban) 1.6GW 확보, 인콰이어리 9GW로. 실적 임팩트: 2030년 풀가동 시 발전엔진만 매출 3.8조원, 영업이익 1조원대 추가 전망 — 어닝스 모델은 DC엔진 후속수주·FDC 개시 확인 후 반영 예정. SMR: 테라파워와 나트륨 원자로 공급 기본합의(FA) 체결, 주기기 우선협상자 지위로 2029년4월까지 생산시설 구축 — FOAK 이후 반복호기 수주 목표, 아직 밸류에는 미반영 (조선/방산/기계 최광식)

• **화장품(Overweight):** Ulta 프로야 입점 등 C뷰티의 미국 진출이 확대되고 있으나 색조 중심, 기초 점유율은 한국이 미국 30.7%·EU 33.6%로 중국 대비 우위. 중국 색조의 해외 확장은 국내 ODM 중국 법인 수주로 흡수 가능. C뷰티 위협에도 K뷰티 기초 경쟁력은 견조하며 에이피알, 한국콜마 Top Picks 유지 (화장품/의료기기 박종현)

##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본 자료를 기관투자자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자료 발간일 현재 해당 기업의 인수·합병의 주선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서 추천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 현재 해당 기업의 계열사가 아닙니다. 당사는 동 종목에 대해 자료작성일 기준 유가증권 발행(DR, CB, IPO, 시장조성 등)과 관련하여 지난 12개월간 주간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상기 명시한 사항 외에 고지해야 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으며 해당 기업의 주식 및 주식 관련 파생상품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의 조사분석담당자는 어떠한 외부 압력이나 간섭 없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본 자료는 '나눔스퀘어'와 '아리따 글꼴'을 사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투자등급 비율

|             |             |             |
|-------------|-------------|-------------|
| BUY : 93.5% | HOLD : 6.5% | SELL : 0.0% |
|-------------|-------------|-------------|

## 투자등급 관련사항

아래 종목투자 의견은 향후 12개월간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추천종목의 예상 기대수익률을 의미

- BUY: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5% 이상
- HOLD: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5% 이상 ~ +15% 미만
- SELL: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5% 미만

투자 의견이 시장 상황에 따라 투자등급 기준과 일시적으로 다를 수 있음

동 조사분석자료에서 제시된 업종 투자 의견은 시장 대비 업종의 초과수익률 수준에 근거한 것으로, 개별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과 다를 수 있음

- Overweight: 해당 업종 수익률이 향후 12개월 동안 KOSPI 수익률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 Neutral: 해당 업종 수익률이 향후 12개월 동안 KOSPI 수익률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 Underweight: 해당 업종 수익률이 향후 12개월 동안 KOSPI 수익률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주) 업종 수익률은 위험을 감안한 수치